

# 大巡眞理의 宗旨에 나타난 信에 관한 理解

-東學의 經典과 比較를 中心으로-

金正泰\*

## 目次

I. 머리말	4.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신(信)
II. 東學의 經典에 나타난 誠·敬·信	III.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경·신
1. 동학에 관한 기초적 이해	1.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개념
2.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성·경·신	2.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성
3. 해월(海月) 최시형이 주장하는 성·경·신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순사상과 동학의 연관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성을 증명하는 내용은 『전경(典經)』의 여러 장·절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양자간에는 대조적인 믿음이 양립(兩立)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학 신도들이 대순사상을 “동학의 아류” 정도로 폄하(貶下)하고 있으며, 상제님을 따르는 신도들은 상제께서 동학을 완성시킨 존재로 신앙하고 있는 것이 그것의 좋은 예일 것이다.<sup>2)</sup>

이러한 대조적인 믿음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로

\* 前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1) 『典經』의 내용중 동학과 관련된 내용을 밝히고 있는 내용은 대략 30차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2) 金鐸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두 종교체계의 만남이 있게된 배경을 시대적, 인물적 배경으로 나누어 양자간의 관련성을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의 입장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상생(相生)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앞서 언급한 동학과의 관련성과 대조적인 신앙에 착안하여, 성경신의 내용을 매개로 그것의 비교를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 의미를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각각의 경전에 나타나는 성경신과 관련한 내용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본 다음 결론의 내용에서 각각의 내용 비교를 통해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겠다.

## Ⅱ. 東學의 經典에 나타난 誠·敬·信

### 1. 동학에 관한 기초적 이해

동학은 1860년(철종 11) 경주(慶州) 사람 최제우(崔濟愚)에 의하여 창도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신종교이다.

최제우는 전통적인 유교(儒敎)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유교 경전을 배워, 성년이 되어서는 지방의 유학자로 이름이 나 있었다. 당시 한국은 어린 헌종왕의 즉위로 외척(外戚)의 세도정치가 계속되면서 정권다툼으로 지배층의 알력이 극도에 달하였고, 양반과 토호(土豪)들은 백성들에 대한 횡포와 착취를 자행함으로써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각지에서 농민봉기를 일으키는 등, 사회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있었다. 더구나 일본을 비롯한 외세(外勢)의 간섭이 날로 심해져 국운이 위기에 처하는 한편, 국민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유교·불교가 극도로 부패하여 조정은 민중을 제도(濟度)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새로 들어온 서학(西學:천주교)의 세력이 날로 팽창하여 그 이질적인 사고(思考)와 행동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것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때 최제우는 서학에 대처하여 민족의 주체성과 도덕관을 바로 세우고, 국권을 튼튼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道)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세제민(救世濟民)의 큰 뜻을 품고 양산(梁山) 천수산(千壽山)의 암굴 속에서 수도하면서 도를 갈구(渴求)한 지 수 년만에 '한울님(上帝)'의 계시를 받아 '동학'이라는 대도(大

道)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동학은 서학에 대응할 만한 동토(東土) 한국의 종교라는 뜻으로, 그 사상의 기본은 종래의 풍수사상과 유(儒)·불(佛)·선(仙:道敎)의 교리를 토대로 하여, '인내천(人乃天) 천심즉인심(天心卽人心)'의 사상에 두고 있다. '인내천'의 사상은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이념과 만민평등의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기에는 종래의 유교적 윤리와 퇴폐한 양반사회의 질서를 부정하는 반봉건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다. 최제우가 '한울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는 '동학'이란 교명(敎名)과 영부(靈符)와 주문(呪文)이라고 한다. 영부란 백지(白紙)에 한울님의 계시에 따라 그린 일종의 부적(符籙)으로, 궁을형(弓乙形)으로 되어 있고 때로는 태극부(太極符)·궁을부(弓乙符)라고도 부른다. 주문은 13자로 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본주(本呪)와 8자로 된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강령주(降靈呪) 등이 있다. 이 영부와 주문은 동학을 포교하는 데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컨대 주문을 외면서 칼춤을 추고 영부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물에 타서 마시면 빈곤에서 해방되고, 병자는 병이 나아 장수하며 영세무궁(永世無窮)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동학은 신분·적서(嫡庶)제도 등에도 반기를 들어 이를 비판하였으므로, 그 대중적이고 현실적인 교리는 당시 사회적 불안과 질병이 크게 유행하던 삼남지방에서 신속히 전파되었다. 포교를 시작한 지 불과 3~4년 사이에 교세는 경상도·충청도·전라도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이 같은 추세를 지켜보던 조정에서는 동학도 서학과 마찬가지로 불온한 사상적 집단이며 민심을 현혹시키는 또 하나의 사교(邪教)라고 단정하고 탄압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1863년에는 최제우를 비롯한 20여 명의 동학교도들이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죄로 체포되어, 최제우는 이듬해 대구에서 사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최제우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이 순교한 후에도 조정의 탄압이 계속되자 교인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한편 최제우의 뒤를 이은 2세 교조 최시형(崔時亨:海月)은 태백산과 소백산 지역에서 은밀히 교세를 정비·강화하였다. 전부터 내려오던 접주(接主)제도를 확

대 개편하여, 교인들의 일단(一團)을 ‘포(包)’라 하고 여기에 포주(包主)를 두었다. 포주 위에는 접주·대접주, 그 위에 도주(道主)·대도주를 두는 한편, 포주·접주 밑에는 ‘육임(六任)’이라 하여 교장(教長)·교수(教授)·교집(教執)·교강(教綱)·대중(大中)·중정(中正)을 두었다. 이와 같이 대중 속에 조직된 동학은 1894년(고종 31)에 발생한 동학농민전쟁의 주체가 되었고, 이 때 사형을 당한 최시형의 뒤를 이은 3세 교주 손병희(孫秉熙)는 동학을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여 계속 교세확장에 힘쓰게 되었다. 한편 동학은 이 때 시천교(侍天敎)라는 또 하나의 교파가 분리되었다.

그 후 조선 후기 1860년에 최제우(崔濟愚)를 교조로 하는 동학(東學)을 1905년 제3대 교조 손병희(孫秉熙)는 천도교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천도교의 수행은 개인적으로는 청원(請願)과 기복(祈福)이 수반되지만, 신앙체제를 확립하여 도성입덕(道成立德)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으며, 집단적으로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면서 희생·봉사로써 보국안민(輔國安民)·포덕천하(布德天下)·광제창생(廣濟蒼生)에 이바지하는 데 두고 있다.

그의 실행을 위해서 성(誠)·경(敬)·신(信)을 실천 윤리의 준칙(準則)으로 삼고 있으며, 종교행위로는 ① 주문(呪文), ② 청수(淸水), ③ 심고(心告), ④ 경전봉독(經典奉讀), ⑤ 기도, ⑥ 성미(誠米), ⑦ 시일식(侍日式), ⑧ 기념식 등이 있다. 주문은 본 주문이 13자로서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이며, 강령주문(降靈呪文)은 8자로서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다.

이 글을 수없이 반복하여 외우는데, 그 목적은 마음을 닦고(修心), 기운을 바르게(正氣) 하는 데 있다. 심고는 “한울님 감응하시기를 축원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다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수는 모든 제례의식 때 깨끗한 물을 그릇에 떠다 바치는 것이며, 경전봉독은 천도교 경전인 『東經大典』과 『龍潭遺詞』를 경건하게 읽는 것이다. 기도는 심고·청수봉전(奉奠)·주문 읽는 것을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행하는 것을 말하며, 성미는 우리들이 끼니마다 먹는 음식을 한울님의 녹(祿)이라고 생각하여 끼니마다 쌀 등을 한 손가락씩 뜨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모아서 교단에 바친다.

시일식은 1주일에 한 번(일요일에 교당에서 행함) 집회하여 의식을 행하는 것이며, 기념식은 창도일(創道日) 등 기념할 만한 날에 의식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주문·청수·시일·성미·기도를 특히 오관(五款)이라 하여 교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제사의식은 향아설위(向我設位)라 하여 제수를 모시는 사람을 향해 차려 놓는데, 이것은 조상이나 스승님의 영(靈)도 내 안에 모셔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천도교의 수행기본(修行基本)은 기원만도, 깨달음만도 아닌 '수인사대천명(修人事待天命)'의 은총과 자력을 겸하는 데 있다.<sup>3)</sup>

## 2.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성·경·신

동학에서 사용하는 경전은 최제우가 지은 『동경대전(東京大典)』<sup>4)</sup>과 동학 교단에서 동학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만들었던 가사인 이른바 “동학가사” 또는 “천도교가사(天道教歌辭)”가 있다.

그 중 동학가사는 전통적인 한글 가사체(歌辭體) 형식을 빌려 일반 민중과 부녀자가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았다.

동학교도들은 이를 암송하거나 노래로 불러서 전해지기도 했고, 또는 구전되면서 경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목판본으로 간행하기도 했다. 첫 작품은 최제우(崔濟愚)가 1860~1863년에 지은 『용담유사(龍潭遺詞)』에 수록된 것들로 모두 한글로 지어졌다. 즉 1860년에 지은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教訓歌)」, 1861년에 지은 「도수사(道修詞)」,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검결(劍訣)」, 1862년에 지은 「권학가(勸學歌)」, 1863년에 지은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

3) 두산 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참고

4) 천도교(天道教)의 경전으로, 순한문 활자본으로 되어있으며, 저자는 최제우(崔濟愚)가 1880년(조선 고종 17)에 지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순한문 활자본인 동경대전은 1권 1책으로 천도교 교조 최제우(崔濟愚:1824~1864)의 저서로, 1864년(고종 1) 저자가 사형 당할 때 같이 불태워졌는데, 후계자 최시형(崔時亨)이 암송한 내용 등을 모아 엮어 1880년(고종 17)에 간행하고, 이어 1883년과 1890년에 중간하였다. 동경대전은 본문과 별집(別集)으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에는 포덕문(布德文)·논학문(論學文)·수덕문(修德文)·불연기연문(不然其然文)이 수록되었고, 별집에는 축문(祝文)·입춘시(立春詩)·절구(絶句)·강시(降詩)·좌잡(座箴)·화결시(和訣詩) 등이 실려 있다.

歌)』 등 9편이다. 『용담유사』에 실린 가사는 순한문으로 된 천도교 경전인 『동경대전(東經大全)』과 내용이 비슷하면서도 더욱 절실하다. 서양 세력의 동점(東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맞서기 위한 정신자세로서 동학을 내세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용담유사』 외에도 동학교단에서는 많은 가사가 만들어졌다. 그 중 필사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용호대사(龍虎大師)라는 미지의 인물의 『궁을가(弓乙歌)』, 이서구(李書九)의 『채지가(採芝歌)』 6편 등으로 홍우(洪又)가 편찬한 『동학문명(東學文明)』에 실려 있다.

목판본으로 전해지는 것은 경북 상주지방에서 동학교라는 교단을 따로 연 김주희(金周熙)가 간행한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방대한 자료는 김주희가 간행한 것으로 수집한 자료에 자신의 창작을 추가하여 1922~1933년에 펴낸 것이다. 총 40책에 이르며, 「검결」이 빠진 『용담유사』 8편과 더불어 100여 편에 이른다.

최제우의 도통을 이어받아 동학교를 창건했다고 했는데도 그 내용은 『용담유사』와 다르다. 즉 동학을 서학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오행사상에서의 동방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으며, 표현에 있어서도 너무 관념적이고 작자의 심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교리를 풀이하는 데 치중하였다. 동학가사는 가사문학사에서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기 동학사상 연구에 가장 소중한 자료이다.

이렇듯 동학의 『東京大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대순진리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많이 발견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誠敬信이다. 먼저 ‘성경신’은 조합어로 이해되며, 이러한 성격을 지니는 성경신의 사용은 동학의 창시자인 수운이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 보인다. 그 이유는 수운 이전에는 誠敬信을 합쳐서 사용한 예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면 먼저 『東京大典』에서는 성경신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吾道博而約 不用多言義 別無他道理 誠敬信三字

(나의 도가 넓어도 간략하니 많은 말과 뜻이 필요치 않다. 별 다른 도리

5) 金鐸, 『東學과 甌山敎의 만남』, (서울: 한누리 미디어, 2000), 84쪽 참조.

가 따로 없으니 성·경·신 석자 일 뿐이다.)<sup>6)</sup>

이처럼 『동경대전』의 「座箴」에 언급된 성경신에 관한 수운의 입장은 동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의 개념을 가장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좌잡은 좌우명(座右銘)의 잠언(箴言)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람이 지켜야할 덕목을 설정한 것으로 수행을 통해 반드시 실천해야할 종교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운이 전한 수행의 핵심을 요약하면 그것은 성·경·신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성·경·신에 대한 강조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抵此道 心信爲誠 以信爲幻 人而言之 言之其中 曰可曰否 取可退否 再思心定 定之後言 不信曰信 如斯修之 乃成其誠 誠與信兮 其則不遠 人言以成 先信後誠 吾今明諭 豈非信言 敬以誠之 無違訓辭… 「修德文」.  
 (…대저 이 도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정성이 되느니라. 믿을 신자를 풀어 보면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옳은 말은 취하고 그른 말은 버리어 거둬 생각하여 마음을 정하라. 한번 작정한 뒤에는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니 이와 같이 닦아야 마침내 그 정성을 이루느니라. 정성과 믿음이여, 그 법칙이 멀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었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내 지금 밝게 가르치니 어찌 미더운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 들여 가르치는 말을 어기지 말지어다. …) 「수덕문」

이처럼 동화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은 동화 수행의 핵심이며, 요체(要諦)임이 분명하다. 참고로 본 논문의 주제인 성경신이 대순진리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조<sup>7)</sup>이며, 그 중에서도 삼요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6) 「東經大全」, 「座箴」

7) 신조(信條)는 신앙개조(信仰簡條)의 준말로 교의(教義)· 교헌(教憲)· 교규(教規)· 교범(教範) 등의 말로 표시되는 모든 종교의 교리의 요체(要諦)를 가리킨다. 좁은 뜻으로는 특히, 그리스도교의 용어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신경(信經)이라고 한다. 성서가 제1차적인 신앙규준인데 비하여 신조는 제2차적인 규준이 된다.

신조를 뜻하는 말에는 크리드(creed)와 심벌(symbol)의 두 가지가 있다. 이 중 신조를 뜻하는 크리드는 가장 오래된 의미이며, 현대교회의 공통적 신조인 사도신경(使徒信經) 첫머리에 나오는 라틴어 크레도(credo:우리는 믿는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리고 심벌은 '결합시키다' 라는 그리스어에서 전화(轉化)한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사도신경이 12사도의 한 구절씩의 교백이 '결합' 되어 이루어졌다는 해석으로, 이는 역사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② 신조가 성서 속에 산재해 있는 교리를 하나의 간명한 문장으로 '결합시키어'

위에서 살펴본 『동경대전』의 내용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겠으며, 여기에서는 먼저 성·경·신과 관련한 동학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것에 대한 강조는 다른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到此用病 則或有差不差 故莫知其端 察其所然則誠之又誠 至爲天主者 每每有中不順道德者 一一無驗 此非受人誠敬耶

(이렇게 질병에 대처하는 것에 이르러 혹은 차도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 단서를 살펴본 바 그러니 성(誠)하고 또 성하여 하늘님께 이른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도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같이 효험이 없으니 이는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8)

이처럼 성·경을 실천하는 것은 곧 천과의 합일을 이루는 근원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아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하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성경(誠敬) 이자(二字) 지켜내어 / 하늘님을 공경하면 / 자아시(自兒時) 있던 신명 / 몰약자효(勿藥自效) 아닐런가<sup>9)</sup>

위의 내용에서는 성경의 실천목표와 그 대상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실천하면 설령 병을 얻었어도 약을 쓰지 않고도 자연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며, 그러한 효험의 결과는 상제를 공경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 실천의 강조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천

정리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성서의 교리를 간명한 문장으로 정리하였다면 신앙문답(카테키즘)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이것 또한 신조의 개념해석으로는 약하다. ③ 신조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기치라는 해석인데,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다. 따라서 신조는 다른 입장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전투적인 성격을 갖는다. 신조는 사도신경을 출발로 교회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개 만들어졌으나, 공동적 신조로서 대체로 보편적인 승인을 받고 있는 것은 '사도신경' 즉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와 '케톤 신조'이며, 여기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부가되는 경우도 있다.

8) 『東經大全』, 「布德文」

9) 『東經大全』, 「道德歌」

하는 방법은 물욕을 제거하여 마음의 순수를 찾는 것으로 집약된다. 이는 수행의 근본정신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을 용담유사<sup>10)</sup>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자.

이 세상 인심으로/ 물욕 제거하여 내어/ 개과천선 되었으니 성경(誠敬)  
2자 못 지킬까 11)

끝으로 그것의 실천결과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당위적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자.

대저 세상 사람중에/ 정성있는 그 사람은/ 어진 사람 분명하니/ 작심으로  
본을 보고/ 정성 공경 없단말가 12)

정성스러움을 간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진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수운이 제시하고 있는 수행의 방법에서 성경신의 실천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성과 공경을 통한 도성덕립(道成德立)의 실현과 심신의 안정(安心安身)을 누릴 수 있는 실마리가 성경신의 실천에 있음을 이해하게 된다.

10) 용담유사는 동학(東學)의 교조(敎祖)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1824~1864)의 포교 가사집(布敎歌詞集)으로 1881년(조선 고종 18)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60년(철종 11)에 지은 「용담가」,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를 비롯, 1861년에 지은 「도수사(道修詞)」, 「검결(劔訣)」,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1862년에 지은 「권학가(勸學歌)」, 1863년에 지은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등 9편의 가사를 모아서 엮은 책이다.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1881년(고종 18) 6월 충북 단양군 남면 천동(泉洞) 여규덕(呂圭德)의 집에서 간행케 한 것이 있고(1책, 필사본), 1932년 《용담유승》라는 제목으로 김주희(金周熙) 등의 동학가사를 더하여 한데 엮어서 인간(印刊:1책, 37장)한 것이 있다. 서양세력의 동점(東漸)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맞서기 위한 정신자세로서 동학을 내세운다는 뜻이 주가 되어 있다. 일반 민중과 부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 가사체(歌辭體)를 빌려 동학의 사상을 펼쳤는데, 형식이나 문체는 비록 고전 가사와 같지만 개화기의 문체를 처음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개화기 가사의 효시가 된다.

11) 「용담유사」, 「교훈가」

12) 「용담유사」, 「권학가」

### 3. 해월(海月) 최시형이 주장하는 성·경·신

이 장에서는 동학에서 주장되는 성·경·신과 관련하여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海月)의 주장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해월은 조선 후기 동학(東學)의 제2대 교주(教主)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그의 호는 해월(海月)이다. 또한 그의 초명은 경상(慶翔)으로 경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한때 조지소(造紙所)에서 일했다.

해월은 1861년(철종 12) 동학에 입문하여, 1863년 초대 교주 최제우(崔濟愚)에 이어 제2대 교주가 되었다. 64년(고종 1) 정부의 탄압으로 최제우가 처형되자 태백산(太白山)에 은신, 관헌의 감시를 피해 안동(安東)·울진(蔚珍) 등지에서 포교에 힘썼다. 1871년 허락도 없이 이필제(李弼濟)가 교조의 신원운동(伸冤運動)을 전개, 영해(寧海)에서 민란을 일으킴으로써 탄압이 강화되자 소백산(小白山)에 피신했다.

그 후 『동경대전(東經大全)』, 『용담유사(龍潭遺詞)』 등 주요 경전(經典)을 발간, 교의(教義)를 체계화했으며, 1884년 갑신정변(甲申政變) 후 탄압이 완화되자 육임제(六任制)를 확립하고 전국에 육임소(六任所)를 설치, 조직을 강화했다. 1892년 손천민(孫天民)·손병희(孫秉熙) 등의 주장에 따라 교조의 신원, 포교의 자유, 탐관오리의 숙청을 충청도관찰사에게 요구했다.

1893년 2월 제2차로 각 도의 동학 대표 40여 명을 모으고 그 소두(疏頭)로서 박광호(朴光浩)를 내세워 왕에게 직접 상소, 대궐 앞에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게 했다. 왕의 선처를 약속받고 해산했으나 시행되지 않자, 다시 보은(報恩)의 대도소(大都所)에 전국 교도들을 시켜 교조의 신원, 부패관리의 처단,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기치를 들고 제3차 신원운동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시위를 감행하려 했다. 이에 당황한 조정에서 우선 경상도관찰사 조병식(趙秉式) 등 탐관을 파면하자 자진 해산했다.

1894년 고부 접주(古阜接主) 전봉준(全琫準)이 주도한 동학농민운동에 북접(北接) 산하 동학도를 끌기시켜 호응했으며, 9월 전봉준이 일본군 상륙과 정부의 요구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재기포(再起包)하자, 북접 각지의 접주들

에게 총궐기를 명하여 10만여 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논산(論山)에서 남접군(南接軍)과 합세했다. 관군 · 일본군의 혼성군과의 공주(公州)싸움에서 참패하고 또 장수(長水) 등지에서 연패하여 피신했다가 98년 원주(原州)에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처형되었다. 1907년 고종의 특지(特旨)로 신원되었다.

그러면 해월이 주장하는 성경신의 내용을 살펴보자.

吾道只在 誠敬信 三字 若非大德 實難踐行 果能誠敬信 入聖如反掌  
(우리 도는 다만 성·경·신 세 글자에 있느니라. 만일 큰 덕이 아니면 실로 실천하고 행하기 어려운 것이요, 과연 성·경·신에 능하면 성인 되기가 손바닥 뒤집기 같으니라).

위의 내용에 근거하면 최시형은 최수운이 좌잡에서 언급한 성경신의 중요성을 그대로 인용하여 성경신이 천도교 수행의 근본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신의 실천은 대덕을 실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성인이 되는 기본원리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신과 관련한 각각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四時有序萬物盛焉 晝夜翻覆日月分明 古今長遠理氣不變 此天地至誠無息之道也 國君制法 萬民和樂 大夫治法朝廷整肅 庶民治家家道和順 士人勤學國運興焉 農夫力穡衣食豐足 商者勤苦 財用不竭 工者勤業機械俱足 此人民至誠不失之道也

(사시의 차례가 있음에 만물이 생성하고, 밤과 낮이 바뀔에 일월이 분명하고, 예와 지금이 길고 멀음에 이치와 기운이 변하지 아니하니, 이는 천지의 지극한 정성이 쉬지 않는 도인 것이니라. 나라 임금이 법을 지음에 모든 백성이 화락하고, 벼슬하는 사람이 법으로 다스림에 정부가 바르며 엄숙하고, 못 백성이 집을 다스림에 가도가 화순하고, 선비가 학업을 부지런히 함에 국운이 흥성하고, 농부가 힘써 일함에 의식이 풍족하고, 장사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노고함에 재물이 다하지 않고, 공업하는 사람이 부지런히 일함에 기계가 고루 갖추어지니, 이는 인민이 지극한 정성을 잃지 않는 도이니라).

위의 내용은 성(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대 우주의 원리로부터 인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성의 작용과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純一之謂誠 無息之謂誠 使此純一無息之誠 與天地 同度同運則 方可謂之大聖大人也

(순일한 것을 정성이라 이르고 쉬지 않는 것을 정성이라 이르나니, 이 순일하고 쉬지 않는 정성으로 천지와 더불어 법도를 같이하고 운을 같이하면 가히 대성 대인이라고 이를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순일(純一)이라고 명명한 우주의 법도와 관련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것과의 합일을 이룬 경지를 대성 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경에 관한 해월의 입장을 살펴보자.

人人敬心則氣血泰和 人人敬人則萬民來會 人人敬物則萬相來儀 偉哉敬之敬之也夫

(사람마다 마음을 공경하면 기혈이 크게 화하고, 사람마다 사람을 공경하면 많은 사람이 와서 모이고, 사람마다 만물을 공경하면 만상이 거동하여 오니, 거룩하다 공경하고 공경함이어!)

해월이 주장하고 있는 경의 의미는 사람과 사람을 화합케 하는 것이며, 사람이 만물을 공경하게 되면 만상과의 합일을 이루게 되므로 경의 의미는 인간과 인간 만상과 인간이 화합하고 함께 하는 원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宇宙間 充滿者 都是渾元之一氣也 一步足不敢輕舉也 余閑居時一小我着而趨前 其聲鳴地 驚起撫胸曰 「其兒 聲我胸痛矣」 惜地如母之肌膚 母之肌膚所重乎 一襪子所重乎 的知此理體此敬畏之心 雖大雨之中 初不濕鞋也 此玄妙之理也 知者鮮矣 行者寡矣 吾今日 始言大道之真談也

(우주에 가득찬 것은 도시 혼원한 한 기운이니, 한 걸음이라도 감히 경솔하게 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한가히 있을 때에 한 어린이가 나막신을 신고 빠르게 앞을 지나니, 그 소리 땅을 울리어 놀라서 일어나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 어린이의 나막신 소리에 내 가슴이 아프더라」 고 말했었노라. 땅을 소중히 여기기를 어머니의 살같이 하라. 어머니의 살이 중한가 버선이 중한가. 이 이치를 바로 알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체행하면,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신발이 조금도 젖지 아니 할 것이니라. 이 현묘한 이치를 아는 이가 적으며 행하는 이가 드물 것이니라. 내 오늘 처음으로 대도의 진담을 말하였노라).

위에서 주장되는 내용은 앞서 언급한 경이 지니는 의미를 한층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경은 만상만물을 내 몸처럼 공경하는

것으로 그것을 행할 때 만상과의 진정한 화합이 모색됨을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해월이 주장하고 있는 신의 의미를 살펴보자.

仁義禮智非信則不行 金木水火非土則不成 人之有信如五行之有土 億千萬事都是在信一字而已 人之無信如車之無轍也

(인의예지도 믿음이 아니면 행하지 못하고 금목수화도 토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니, 사람의 믿음 있는 것이 오행의 토가 있음과 같으니라. 억천만사가 도시 믿을 신 한자 뿐이니라. 사람의 믿음이 없음은 수레의 바퀴 없음과 같으니라).

해월의 주장에 따르면 신(信)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의미는 만사를 행하고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통해 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信一字 雖父母兄弟 難以變通也 經曰「大丈夫 義氣凡節 無信何生」是也 信心卽信天信天卽信心 人無信心一等神一飯囊而已

(믿을 신 한자는 비록 부모형제라도 변통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경에 말씀하시기를 「대장부 의기범절 신 없으면 어디 나며」 하신 것이 이것이니라. 마음을 믿는 것은 곧 한울을 믿는 것이요, 한울을 믿는 것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니, 사람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한 등신이요, 한 밥주머니일 뿐이니라).

위의 내용에 기초하면 신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믿는 마음은 궁극적으로 절대적 대상과의 연결을 뜻하는 것이며, 인간의 믿음이 부족하면 종국적으로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人或誠而無信 有信而無誠 可嘆矣 人之修行先信後誠 若無實信則 未免虛誠也 心信 誠敬自在其中也

(사람이 혹 정성은 있으나 믿음이 없고, 믿음은 있으나 정성이 없으니 가히 탄식할 일이다. 사람의 닦고 행할 것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정성드리는 것이니, 만약 실지의 믿음이 없으면 헛된 정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정성 공경은 자연히 그 가운데 있느니라).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다면 성·경·신을 실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믿음(信)이 그 바탕에 내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실천은 근본적으로 신(信)을 전제로 한 것일

때 가장 의미있는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동학에서 주장되는 성경신의 의미는 그 실천적 당위성과 함께 그것의 상호 연관성을 밝히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나타난 성, 경, 신은 각기 따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데 반해 동학에서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 그것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인간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먼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해월의 주장을 통해 확인하여 보자.

我水雲大先生 克誠克敬克信之大聖也夫 誠格于天 承乎天命 敬格于天 密聽乎天語 信格于天契合乎天 茲以其爲大聖乎 生而知之之聖猶然乎 愚而欲賢暗而欲明 凡以欲聖乎

(우리 수운대선생께서는 정성에 능하고 공경에 능하고 믿음에 능하신 큰 성인이시었다. 정성이 한울에 이르러 천명을 계승하시었고, 공경이 한울에 이르러 조용히 천어를 들으시었고, 믿음이 한울에 이르러 목계가 한울과 합하셨으니, 여기에 큰 성인이 되신 것이니라. 생이지지하신 성인도 오히려 그리하셨거든, 하물며 어리석은 사람이 어질고자 어두운 사람이 밝아지고자 범인이 성인이 되고자 함에라).

이처럼 수운은 성경신을 실천한 존재로써,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존재로 인식된다. 이는 성경신 실천의 당위적 근거를 수운으로부터 찾고자 하는 종교적 가르침과 그에 따른 교의적 특징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4. 동학의 경전에 나타난 신(信)

이 장에서는 동학에서 주장되는 신에 대한 강조적 내용을 통해 신이 지니고 있는 동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동학의 경전에 나타나는 신(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在德不在於人 在信不在於工 在近不在於遠 在誠不在於求 不然而其然 似遠而非遠…

(…덕에 있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은 듯하나 그러하고 먼 듯하나 멀지 아니하니라…).<sup>13)</sup>

義與信兮又禮智 凡作吾君一會中

(의리와 신의여, 또한 예의와 지혜로다. 무릇 나와 그대 한 모임을 지으리.)<sup>14)</sup>

不知道之所在 度吾信之一如

도가 있는 바를 알지 못하거든 내 믿음이 한결같은가 헤아리라.<sup>15)</sup>

吾道는 博而約하고 精而一으로써 主를 삼나니, 博約精一은 誠敬信이 아니면 능치 못하리라. 信이 有한 然後에 能히 誠하고 誠이 有한 然後에 能히 通하는지라, 故로 在誠在人이라 함은 一則 誠에 在하고 一則 信하는 人에 뿐 在한다 함이니라. 우리 도는 넓으면서 간략하고 마음을 자세하고 한결 같이 함을 주로 삼나니, 넓고 간략하고 자세하고 한결같은은 정성·공경·믿음이 아니면 능치 못하리라. 믿음이 있는 연후에 능히 정성하고 정성이 있는 연후에 능히 통하는지라. 그러므로 정성에 있고 사람에게 있다함은 하나는 정성에 있고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 함이니라.<sup>16)</sup>

### Ⅲ. 대순진리에 나타난 성·경·신

이 장에서는 『典經』의 내용에 근거하여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성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다.

#### 1.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개념

不受偏愛偏惡曰仁 不受全是全非曰義 不受專強專便曰禮 不受恣聰恣明曰智 不受濫物濫欲曰信<sup>17)</sup>

위의 내용은 상제께서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오상(五常)의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그 중에서 신의 개념은 남물남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진리회 요람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신에 대한 개념을 좀

13) 『東京大典』,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

14) 『東京大典』, 「우음(偶吟)」

15) 『東京大典』, 「전팔절(前八節)」

16) 해월이 주장한 성경신의 내용

17) 『典經』, 교법, 3장 47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한마음을 정(定)한 바엔 이익(利益)과 손해(損害)와 사(邪)와 정(正)과 편벽(便僻)과 의지(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변(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차이(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안하며 만고(萬古)를 통(通)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經過)하되 산하(山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하여 기대한 바 목적(目的)에 도달케 하는 것을 신(信)이라 한다.<sup>18)</sup>

위의 내용에 따르면 신이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정을 초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부동의 마음가짐 내지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2. 대순사상에 나타난 신(信)의 특성

### 1) 자각(自覺)의 결과

일반적으로 신(信)은 신념(信念) 또는 신앙(信仰)과 관계된 것으로 인간의 이성 내지는 정의적 요소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따라서 신(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념과 관계된 의미로 해석된다.

신념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접촉하는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감정·지각·인식·평가·동기·행동경향 등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자세를 '태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신념은 그것의 인지적인 요소 및 측면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신념은 다소간에 서로 관련을 가지고 전체로서의 체계를 이루나, 그 구조에서는 개인차가 있어 고도로 조직화되어 안정성 있는 신념체계의 소유자가 있는가 하면, 개개의 신념이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18) 대순진리회요람 16쪽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다.

또한 신념은 객관적 사실 및 진실과의 일치에 있어 그 정도가 다양하여 때로는 객관적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일탈(逸脫)하는 수가 있다. 그 극단적인 예로서 속신(俗信)·미신·편견·고정관념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믿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자각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는다.<sup>19)</sup>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믿음(信)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각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각이란 일반적으로 스스로 깨닫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이와 관련한 특성을 『典經』을 통해 살펴보자.

이듬해 봄 기후가 순조로와 보리농사가 잘 되어 풍년의 징조가 보이는 지라. 농부들과 김보경, 장홍해는 지난 가을에 상제께서 들판을 보시고 보리 농사가 실패될 것을 염려하시기에 보리 농사를 짓지 아니한 형렬을 비웃으니라. 이것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것은 신명공사에서 작정된 것인데 어찌 결실하기도 전에 농작을 예기할 수 있으리오” 하시고 종도들의 성급함을 타하시니라. 오월 오일(五月五日)에 폭우가 쏟아지니라. 보리이삭에 병이 들어 이삭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결실이 되지 않는도다. 쌀값이 뛰고 보리 수확이 없게 되자 농부들이 상제의 말씀을 깨닫고 감복하기만 하였도다.<sup>20)</sup>

위의 내용은 자각의 과정을 통해 상제를 향한 믿음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신명공사와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해 칠(七)월 이르러 쌀값이 더욱 뛰고 거기에 농작물 마저 심한 충재가 들어 인심이 더욱 사나와 지기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신축년부터 내가 일체의 천지공사를 맡았으니 금년에는 농작물이 잘 되리라.”고 이르셨도다.<sup>21)</sup>

19)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서울: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53쪽. 이하 「대순지침」으로 표기함.

20) 『典經』, 권지, 1장 6절

21) 『典經』, 권지, 1장 7절

위의 내용은 앞서 살핀 내용과 비교해볼 때 대조적인 상황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앞서 제시된 전경의 내용은 풍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흉년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후반에 제시된 예문은 이와는 반대로 흉년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나 풍년이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반대의 대조적 결과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결정된 상황임을 일러주고 계신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내가 천지공사를 행하면서부터 일체의 아표신(餓殍神)을 천상으로 몰아 올렸으니 이후에는 백성이 기근으로 죽는 일은 없으리라”고 하셨도다.<sup>22)</sup>

이러한 『典經』의 예문에서 믿음과 관련한 대순사상적 특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예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상제께서 구릿골을 떠나 익산(益山)에 이르시고 그 곳에서 월여를 보내 시다가 다시 회선동(會仙洞)에 이르시니라. 이 곳에 김보경(金甫京)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 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밤은 명부사자(冥府使者)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좇아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 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 갔도다. 이 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박 잠에 빠졌던 바 이 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 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sup>23)</sup>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믿음과 자각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제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깨닫는 일은 사람의 생명과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더욱 더 보충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22) 『典經』, 권지, 1장 8절

23) 『典經』, 행록, 1장 34절

전경에 “농부가 곡식 종자를 갈무리하여 두는 것은 토지를 믿는 까닭이라” 하셨으니 가식(假飾)이 없는 신앙의 본의(本意)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sup>24)</sup>

또 상제께서 “춘무인(春無仁)이면 추무의(秋無義)라. 농가에서 추수한 후에 곡식 종자를 남겨 두나니 이것은 오직 토지를 믿는 연고이니라. 그것이 곧 믿는 길이니라” 하셨도다.<sup>25)</sup>

## 2) 믿음의 주요대상

이 장에서는 믿음의 구체적 대상을 상제님의 말씀에 두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의 믿음(信)이 지니는 특성을 파악해 보겠다.

상제께서 정미년 정월에 형렬에게 가라사대 “나의 말이 곧 약이라.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기도 하며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게도 하며 말로써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며 말로써 죄에 걸린 자를 풀어주기도 하니 이것은 나의 말이 곧 약인 까닭이니라. 충언이 역이로되 이어행(忠言逆耳利於行)이라. 나는 허망한 말을 아니하나니 내 말을 믿으라” 하셨도다.<sup>26)</sup>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곧 믿음의 주요한 대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개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교조(敎祖)의 말씀과 언행이 신앙과 수행의 근간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종교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근본이 되기도 한다. 즉 교조의 생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의 가르침은 영원성을 지니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한 종교적 특성의 바탕에 늘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이다. 따라서 교조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의 말은 항상 진리이며, 신앙의 또 다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한 또 다른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대인의 말은 구천에 이르나니 또 나의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잘 믿으라.<sup>27)</sup>

24) 『대순지침』, 53쪽

25) 『典經』, 교법 2장 45절

26) 『典經』, 교법 2장 1절

이처럼 상제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대인의 말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것의 가치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의 말씀은 신앙 내지는 믿음의 또 다른 대상이며, 동시에 신앙적 측면에서 합일적 가치와 동시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믿음의 강조와 그것의 가치는 다음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먼저 그것을 살펴보자.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sup>27)</sup>

위의 사실에서 상제께서는 당신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참다운 가치를 설명하고 계신다. 즉 상제께서 영원히 신도들의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 계시는 존재이며, 그것의 가능성은 상제께서 일생을 통해 전달하신 가르침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 3) 믿음(信)과 상제신앙의 특성

일반적으로 신앙이란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내지는 하느님의 섭리(攝理)에 대한 인간의 순종( 신뢰)이라는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신불(神佛)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와 무조건 복종을 말하며,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사람은 종교적 체험이나 의례(儀禮)를 되풀이함으로써 인격의 내부에 차츰 일정한 신앙적 자세가 형성되어 가는 것을 뚜렷이 자각하게 된다. 이 심적인 태도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인데, 신앙은 개인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편, 신앙의 표현인 신조·조직·제도를 가진 공동체의 생활을 통일하는 중심이 되기도 한다.

한편 신앙은 종교적 경험이나 그 밖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 및 태도에 불과하다. 개인에게 있어 모든 신념이 똑같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말초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이다. 중심적인 것일 수록 잘 변화하지 않으나 한 번 변화하면 다른 신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27) 『典經』, 교법 2장 2절

28) 『典經』, 교법 2장 7절

미국의 심리학자 로키치는 그 중요성 및 모든 신념체계의 결합도를 기준으로 신념을 5종류로 분류하였다.

- ① 100 %의 사회적 일치로 지지하는 근원적 신념,
- ② 개인적 경험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신념,
- ③ 저마다의 권위에 대한 신념,
- ④ 동일시되는 권위에서 나오는 신념,
- ⑤ 다소간 개인적 취미에 바탕을 두어 다른 신념과의 관련이 희박한 개별적 신념 등이 있다.

이처럼 신앙은 신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은 지성(知性)을 통하여 직접적인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지식의 범위 안에서 사물을 생각하고 행동을 결정한다. 지식은 학문적 연구에 따라 무한히 변하면서 진보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의 확실성은 항상 불완전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충분히 검증(檢證)되지 않은 지식이라도, 하나의 가설(假說)로 인정되거나 주관적으로 완전하다고 긍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전적으로 지적(知的)인 근거에만 의거하여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심적 태도가 신념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앙은 정의(情意)의 면까지를 기능적으로 통일하면서 실존적 상황에서 생사를 걸고 초월적 존재와 전인격적(全人格的)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신념은 합리적 경험의 범주에 그치는 사고형식을 갖는데 비해, 신앙은 지(知)·정(情)·의(意)의 경험 전체에 관련될 뿐 아니라 경험을 초월한 영역에까지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성의 사고형식을 넘어선 새로운 것을 낳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과학이 진보하면 신앙은 불필요해진다 는 사고방식은 신앙과 신념을 혼동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앙은 다양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의 대상, 심적 태도의 특색, 사회나 문화의 상황에 따라 신앙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다르다. 인간형성의 과정에 있어서도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변화한다. 특히 청년기에는 종교문제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신(入信)이나 개종(改宗)이라는 회심(回心)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앙은 점차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신앙의 여러 형태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이상적인 종교적 인격을 갖춘 가치

를 성자성(聖者性) 또는 성숙한 생산적 종교 정조(情操)라고 말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제께서는 화천하시기전 종도들에게 변함없는 믿음 내지는 신앙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와 관련한 『典經』의 구절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무신년 어느날 고부인에게 “내가 떠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시니 부인이 대하여 어찌 변함이 있겠나이까”고 대답하였도다.<sup>29)</sup>

이 대답을 듣고 상제께서 글 한수를 지으셨도다.  
無語別時情若月 有期來處信通潮<sup>30)</sup>

위의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일차적으로 삶과 죽음을 떠난 믿음의 강조이다. 이는 상제에 대한 신앙적 태도를 살필 수 있는 내용으로 종교체 내에서 신앙의 중요성과 그에 관련한 태도를 역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논의된 것처럼 종교에서의 믿음은 대개 영원성을 지닌다. 즉 생사의 관계를 떠나 그것의 지속성이 발휘됨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은 내세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는데, 대순사상에서는 내세적 요소보다는 상제의 재림(再臨)에 그것의 특성이 모아진다고 할 것이다. 상제께서는 『典經』의 여러 내용을 통해 재림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신다. 따라서 상제에 대한 생사를 초월한 변함없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信)의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차 경석, 김 광찬, 황 응종을 앞에 세우고 공우에게 몽치를 들게 하고 윤경에게 칼을 들리고 “너희가 이 이후에도 지금의 스승을 모시고 있듯이 변함이 없겠느냐. 변함이 있으면 이 몽치로 더수구니를 칠 것이오. 이 칼로 배를 가를 것이니라.”고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시기도 하셨도다.<sup>31)</sup>

29) 『典經』, 행록, 4장 23절.

30) 『典經』, 행록, 4장 24절

31) 『典經』, 행록 4장 41절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듯 나에게 추종하나 후일에는 눈을 떠서 바로 보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라. 동학가사에 “많은 많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람 저러하고 어떤 사람 그러한가”와 같이 탄식줄이 저절로 나오리라.<sup>32)</sup>

#### 4) 신명(神明)에 대한 믿음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성 중 하나는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실의 구체적 논의는 그간의 내용을 통해 진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믿음과 신명과의 관계를 통해 대순사상에서 신(信)이 지니는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典經』의 내용을 통해 믿음과 신명과의 관련성을 밝혀보자.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公友)를 데리고 어디를 가실 때 공우에게 우산을 사서 들게 하셨도다. 공우는 상제께서는 원래 우산을 받는 일이 없었고 비록 비오는 날 길을 가실지라도 비가 몸에 범하는 일이 없었던 일을 생각하여 이상히 여기더니 뜻밖에 비가 오는도다. 상제께서 공우에게 우산을 받으라 하시니 공우는 상제께 받으시길 청하여 서로 사양하다가 함께 비를 맞아 옷이 흠뻑 젖으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뒤로는 우산을 들지 말라 의뢰심과 두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음호를 받지 못하니라.”고 하셨도다.<sup>33)</sup>

이는 신명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 글에 나타난 핵심요지는 신(信)에 대한 강조이다. 이처럼 신명의 보이지 않는 보호(保護) 즉 음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명에 대한 확신과 그를 통한 일심의 견지(堅持)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사상의 특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이상적 인간상을 실현하는 기초가 신인조화(神人調化)에 있다고 할 때 신명과의 조화와 음호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신(信)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순지침』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믿음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32) 『典經』, 교법 2장 9절

33) 『典經』, 행록 4장 40절

성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하며, 경은 예절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며, 믿음은 의심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의심을 버리는 것이며, 앞서 언급한 자각의 과정을 통한 확신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것처럼 인간과 신명과의 조화를 통한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의 방법임을 감안한다면 신명과의 조화적 관계를 이루기 위한 일차적 작업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 5) 믿음과 생·사(生死)의 관계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믿음과 관련한 또 다른 특성은 그것이 생사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사실을 『典經』의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자.

김 자현은 유(六)월 어느날 상제께서 “내가 나를 믿느냐”고 다짐하시기에 “지성으로 믿사오며 고부화액 때에도 상제를 따랐나이다”고 믿음을 표명하였도다. 그리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장차 어디로 가리니 내가 없다고 핑계하여 잘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다 잊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자현은 “제가 모시고 따라가겠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다시 “어느 누구도 능히 따르지 못할지니라. 내가 가서 일을 행하고 돌아오리니 그 때까지 믿고 기다리라. 만일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고 이르셨도다.<sup>34)</sup>

너희들은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sup>35)</sup>

상제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분명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을 위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논의되는 죽음은 단순히 일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죽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논의된 것처럼 상제를 믿고 따르는 것의 궁극적 모습은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된다. 그리고 그것의 확인은 위의 내용에서 “나의 그늘을 떠나면 죽을지니라”는 내용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듯 상제님의 말씀을 따르고 항시 잊지 않는 “시천주”의 강조는 생사와 관련한 믿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대순사

34) 『典經』, 행록 5장 19절

35) 『典經』, 교법 1장 5절

상의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 6) 천지공사(天地公事)에 나타난 믿음(信)의 특성

이 장에서는 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에서 인간의 믿음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어 그것의 내용을 통해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하는데 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 보자.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 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 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sup>36)</sup>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특성과 그 안에서 믿음의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외 없이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 천지공사는 대순사상에서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기초적인 원리이며, 방법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는 상제님의 말씀은 천지공사와 믿음의 상관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내용이며, 이러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참고로 천지공사에서는 인간의 참여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사의 방법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상제께서는 공사에 참여했던 종도들에게 항상 정성과 공경과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사실을 내용을 통해 그것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자.

36) 『典經』, 공사 1장 2절

무신년 칠(七)월에 이르러 상제께서 원일을 이끄시고 부안 변산 우금암(遇金岩) 아래에 있는 개암사(開岩寺)에 가시니라. 그때 상제께서 원일에게 삶은 쇠머리 한개와 술 한 병과 청수 한 그릇을 방안에 차리고 쇠머리를 청수 앞에 진설하게 하신 후에 원일을 그 앞에 꿇어앉히고 성냥 세 개비를 그 청수에 넣으시니라. 이때 갑자기 풍우가 크게 일어나고 홍수가 창일하는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이제 청수 한 동이에 성냥 한 갑을 넣으면 천지가 수국(水國)이 될지니라. 개벽이란 이렇게 쉬우니 그리 알지어다. 만일 이것을 때가 이르기 전에 쓰면 재해만 끼칠 뿐이니 그렇게 믿고 기다리라”고 일러주시고 진설케 하신 것을 모두 거두니 곧 풍우가 그쳤도다.<sup>37)</sup>

위의 내용은 천지공사의 결과인 후천개벽(後天開闢)과 그에 따른 상제님의 당부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지공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개벽에 대한 믿음과 그것의 확신을 종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믿음과 관련하여 간과해서는 안될 사실은 개벽은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며, 그 때를 어기게 되면 천지에 재앙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그 때가 설령 멀어 기다리기가 조금할 지라도 개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믿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은 분명 천지공사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며, 현실을 살아가는 신도들에게 믿음과 후천개벽의 관계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할 것이다.

## 7) 믿음과 해인(海印)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해인은 일반적으로 “부처의 슬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해인의 획득은 결국 도통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典經』을 통해 나타나는 해인의 특성을 살펴보자.

형렬이 명을 좇아 육십사(六十四)괘를 타점하고 이십사(二十四)방위를 써서 올렸더니 상제께서 그 종이를 가지고 문밖에 나가셔서 태양을 향하여 불사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나와 같이 지내자” 하시고 형렬을 돌아

37) 『典經』, 공사 2장 27절

보며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가져다 주리라”고 말씀하셨도다.<sup>38)</sup>

위의 사실에 근거하면 상제에 대한 믿음은 해인과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러면 대순사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자.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인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眞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sup>39)</sup>

위의 내용에서 도주께서 밝히신 해인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것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掌中)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상제께서 화천하신 후 많은 종도들은 각기 교단을 창립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통인패”와 같은 호신부를 제작하여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보급한 일이 있다. 따라서 도주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염려하여 진정한 해인은 물건이 아닌 자신의 장중에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인을 얻기 위한 일차적 조건은 상제님에 대한 믿음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문의 하나인 기도주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侍天主 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 至氣今至 願爲大降”이다. 이러즉 상제님을 모시면 조화가 정해지고 영세토록 잊지 않고 믿음을 견지한다면 만사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의 결과는 만사지로 나타나며 이는 불타의 슬기와 그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만사를 알게되는 반야의 지혜가 해인이라면 이는 결국 상제님에 대한 변함없는 일심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믿음의 결과와 가치를

38) 『典經』, 교운 1장 62절

39) 『典經』, 교운 2장 55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sup>40)</sup>

부귀한 자는 자만 자족하여 그 명리를 돌우기에 마음을 쏟아 탄 생각을 머금지 아니하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가 생각하여 도성 덕립을 하루 속히 기다리며 운수가 조아들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sup>41)</sup>

## 8) 믿음의 방법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순사상에서 제시되는 믿음을 이루는 구체적 과정 내지는 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믿기를 활을 다루듯이 하라. 활을 너무 성급히 당기면 활이 꺾어지나니 진듯이 당겨야 하느니라.<sup>42)</sup>

위의 내용에서는 믿음을 행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것의 결론은 성급함을 멀리하고 점진적인 자세를 통해 궁극의 목표를 달성함을 강조하고 계신다. 일반적으로 성급한 믿음은 맹신 또는 광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광신의 비극은 1212년에 프랑스 및 독일의 소년·소녀들이 일으킨 십자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십자군이라고도 하는 서유럽 십자군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고도 비극적인 에피소드는 당시의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까지도 소년십자군을 권장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를레앙 지방의 목동 에티엔이 성지 회복을 주장하여 3만의 소년·소녀를 모았고 독일에서는 쾰른 지방의 소년 니콜라우스가 2만의 아이들을 집결시켰다. 그러나 모두 악덕상인들의 꾀에 속아 아프리카 등지의 이국땅에서 노예로 팔렸고 도중에 배가 난파하여 바다에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많았다. 이 어린이십자군은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고조되었던 광신(狂信)을 잘 보여 주는 비극이다.

40) 「典經」, 교법 2장 7절

41) 「典經」, 교법 2장 8절

42) 「典經」, 교법 2장 35절

광신과 관련한 또 다른 예를 독일 나치스의 준 군사조직이었던 히틀러의 개인 경호대였던 일명 SS를 통해 살필 수 있다. SS는 1925년 4월 국내외 정보수집, 첩보활동, 경찰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소규모 개인 경호대로 창설했다. 나치스 무장조직으로 독일과 유럽을 정복하려던 히틀러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929년부터 1945년 해체될 때까지 헤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가 책임자였다. 광적인 인종주의자인 힘러는 신체가 건강한 순수 아리아인 혈통만 대원으로 뽑았다. 히틀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건이었다. 대원들은 독특한 휘장을 단 검은 제복을 입었다.

처음에는 300명 정도였다가 1933년 나치 집권 당시에는 5만 명이 넘는 정도로 규모가 늘어났다. 히틀러가 SS의 도움으로 1934년 나치스돌격대(SA)를 숙청해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후 히틀러에 복종하는 독립집단이 되었다. 1934년에서 1936년까지 힘러는 전 독일 경찰력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합·정리했다. 1939년에는 대원이 25만 명으로 늘어났고 일반SS와 무장SS로 분리되었다.

일반SS는 경찰과 인종 업무를 맡았고 조직으로는 제국중앙보안국(RSHA)·치안경찰(Orpo)·보안경찰(Sipo) 등이 있었다. RSHA에는 보안대(SD)를 두어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고 첩보활동을 담당하게 했다. 보안경찰에는 범죄경찰(Kripo)과 게슈타포가 있었다.

무장SS는 일반 군대보다 강도 높고 철저한 훈련을 받았으며 최신 무기와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었다. 무기가 부족할 때도 최우선 지급 대상이었다. 당내에서도 엘리트조직으로 간주했고 상당한 특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전투능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나치스 단체 가운데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며 광신적인 활동으로 악명 높았다.

조직으로는 라이프슈탄다르테, 토텐코프페르벤데, 페르퀴공스트루펜이 있었다. 라이프슈탄다르테는 히틀러 경호 임무를 맡았고, 해골부대인 토텐코프페르벤데는 집단강제수용소를 관리했으며, 페르퀴공스트루펜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39개 부대로 늘어 정규군과 함께 전투부대로 활약했다.

SS 대원들은 다른 인종을 증오하고 인간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교육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정치범, 집시, 유대인, 폴란드 지도자, 공산당 간부, 게릴라 저항군, 소련 전쟁포로들을 대량 학살했다. 독일이 패배한 후 1946년 뉘른베르크 연합국제관소에서 범죄단체로 선언했다.

이처럼 광신의 비극은 역사상 많은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상제께서는 광신과 맹신을 멀리한 순리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다. 이러한 강조는 다음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상제께서 경석에게 가르치시기를 “모든 일이 욱속부달(欲速不達)이라. 사람 기르기가 누에 기르기와 같으니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다 인공에 있느니라.” 43)

백성이 국가를 믿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다면 난신적자(亂臣賊子)가 될 것이다. 44)

수도자가 믿음이 부실하면 결과적으로 난법난도자가 된다. 45)

## 9) 믿음은 천지의 진액(津液)

상제께서는 친히 지으신 오주(五呪)의 내용을 공개하시면서, 그것이 천지의 진액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면 먼저 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상제께서 정미년 선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일월성진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치만물(日月無私治萬物) 강산유도수백행(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世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 46)

43) 『典經』, 교법 2장 34절

44) 『대순지침』, 53쪽

45) 위의 책, 같은 곳

46) 『典經』, 교운, 1장 30절

위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오주의 내용에서 성경신은 복록 수명과 깊은 관련성을 지니며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복록과 수명은 인간의 생과 관련하여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조건이다. 그러면 복록 수명과 관련한 또 다른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자.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sup>47)</sup>

이처럼 상제께서는 복록 수명을 강조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녹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녹은 인간의 수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자신의 녹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준거가 되며 인간은 자신이 지은 녹만큼 자신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신인 것이며, 성경신은 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대순지침』에서는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성·경·신으로 해원상생을 이루며 생사판단도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성경신은 분명 생사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동시에 해원상생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의 「典經」 내용은 그 의미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浩浩道主奉命明明度數無私至公引導乎無量極樂五萬年清華之世肅我道友嚴我道友極誠極敬至信至德難求之欲虛過一世之冤至干斯而豈不解冤哉喜吾道友勸哉勉哉<sup>48)</sup>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넓고 넓은 도주께서는 밝고 밝은 도수를 받들고 무사지공하게 우리를 무량극락오만년 청화세계로 인도한다. 엄숙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정성과 공경과 지극한 믿음을 다하라 구하고자 하였으나 구하기

47) 「典經」, 교법 1장 16절

48) 「典經」, 교운 2장 41절

어려워 일세를 헛되이 보낸 그 원을 여기에 이르러 어찌 해원하지 못하리요 기뻐하라 나의 도우들이여 힘쓸지어다. 라는 내용으로 대략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해원상생의 근원적 원리가 여기에서도 역시 성경신을 다함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성경신은 대순사상의 핵심사상인 해원상생의 실천의 바탕이 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분명 성경신은 천지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데, 먼저 그러한 직접적 사실을 『典經』을 통해 확인해보자.

…宙宇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sup>49)</sup>

먼저 위의 내용에서 우주(宇宙)가 거꾸로 주우(宙宇)로 표기된 것은 후천의 시·공간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이유는 후천세계에서는 천하가 한 집안이 되므로 공간적 특징보다는 시간적 특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온 천지와 관련하여 성경신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천지가 성경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앞서 성경신의 논의와 그것의 특징을 감안한다면 천지를 이루어나가고 존재케 하는 가장 주요한 원리가 성경신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수양이 성경신을 통해 완성을 이루게 되면 천지와 합일을 이루는 극치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다음 장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10) 믿음은 자아대성(自我大成)의 기초

이장에서는 믿음이 자아를 이루는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의 특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 먼저 그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는 『典經』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하루는 상제께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탕자의 일에 비유하시니라. “옛날

49) 『典經』, 교운 1장 66절

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을 회과 자책하여 내 일생을 어떻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지금부터라도 신선을 만나서 선학을 배우겠노라고 개심하니라. 그러던 차에 갑자기 심신이 상쾌하여 지더니 돌연히 하늘에 올라가 신선 한 분을 만나니라. 그 신선이 내가 이제 뉘우쳐 선학을 뜻하니 심히 가상하도다. 내가 너에게 선학을 가르치리니 정결한 곳에 도장을 짓고 여러 동지를 모으라고 이르니라. 방탕자는 그 신선의 말대로 정신을 차리고 동지를 모으기 시작하였으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방탕을 알고 따르지 않는지라. 겨우 몇 사람만의 응락을 받고 이들과 함께 도장을 차렸던 바 갑자기 천상으로부터 채운이 찬란하고 선악소리가 들리더니 그 신선이 나타나서 선학을 가르쳤도다.”<sup>50)</sup>

위의 예문에 제시된 내용은 일차적으로 믿음과 관련하여 그것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먼저 상제님의 일은 탕자의 비유처럼 일반인들이 좀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운 일임을 강조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과천선의 마음은 신선(神仙)이 될 수 있는 선학(仙學)을 배울 수 있는 바탕이 됨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수도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결과 선학을 배워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결과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믿음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典經』의 다른 내용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高興)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 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지리산(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50) 『典經』, 교법 3장 16절

가족에게 의논하니 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좇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 51)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진심(盡心)갈력(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 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 고 일러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 내리니 뜻밖에도 오색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52)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 오니 승천하였느니라.」 53)

이와 같은 예문의 내용은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그것의 실천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대순사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면서, 믿음이 자아대성의 가장 중요한 요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도주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도주께서 통사동(通士洞) 재실에서 어느날 “오도자 금불문 고불문지도야(吾道者今不聞 古不聞之道也)”라 믿고 닦기가 어려우니라” 하시고 다시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앞에 모으고 무극대운(無極大運)의 해원상생대도(解冤相生大道)의 진리를 설법하시여 도(道)를 밝혀주셨도다. 54)

51) 「典經」, 교법 3장 17절

52) 「典經」, 예시 83절

53) 「典經」, 예시 61절

이처럼 대순사상은 지금도 듣지 못하고 예전에도 듣지 못한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것 만큼 믿고 따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간직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믿음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것의 실현은 자아대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관성의 믿음을 사실화하여 삼계삼법(三界三法)의 성·경·신으로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sup>55)</sup>

#### IV. 맺음말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대순사상과 동학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경신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면 대순사상과 동학에서는 모두 성경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수행의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간의 합일적 특성이 도출된다.

동학의 경전에서는 성·경·신 석자는 동학의 전체성을 드러내는 요체로 주장될 만큼 그것은 수행의 기초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순사상에서도 성경신은 신조중에서 삼요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양자간에 성경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신의 개념은 의심 없는 굳은 신념인 것이다. 또한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자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믿음의 주요한 대상은 상제님과 상제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집중된다. 또한 신명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간의 생사에 믿음이 중요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또한 천지공사에서 인간의 믿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믿음의 결과는 해인의 획득과 함께 자아대성의 결과를 마련하게 된다. 또한 믿음은 천지의 진액이며, 천지를 지탱하고 운영해 가는 원리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듯 성경신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절대가치에 근거해볼 때 인간의 수양을 통해 그것

54) 「典經」, 교운 2장 18절

55) 「대순지침」, 53쪽

을 이루게 되면 곧 자아대성(自我大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한 작업이 신(信)인 것이다. 따라서 일상 생활을 통해 성경신을 실천하는 방법은 포덕·교화·수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성경신은 궁극의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포덕·교화·수도 및 모든 일이 성·경·신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sup>56)</sup>

‘일심’과 성경신에 바탕을 둔 수행에 있어 성경신은 그것의 가장 궁극적이고 모범적인 노선(路線)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수행은 성경신의 궤도를 따라 진행하니, ‘성’은 심신을 다하여 일심을 견수하고 간단(間斷)과 강약의 도(度)가 없게 하는 것이요, ‘경’은 일심을 수시로 반성하여 자만함이 불급(不及)을 계(戒)하는 것이요, ‘신’은 필승의 신념을 확립하여 의력을 발양하는 것이다. 또 성경신이 외계로 표출될 때 행의(行儀)를 재율(宰律)하는 것이니, ‘마음 속이지 않음’과 ‘척지지 않음’은 성의 표출이고, ‘언덕을 바르게 함’과 ‘남 잘되게 함’은 경의 표출이며, ‘시보상성(施報相成)’은 신의 표출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은 다섯가지 훈회가 그것들의 내적 동인으로서의 성·경·신을 항상 보강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또한 성·경·신은 ‘일심’을 보장하는 것이다. 요컨대 ‘일심’이 지속되어 어느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다섯 규범에 성격합화를 얻어 안심안심과 경천수도의 경지를 완성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56) 「대순지침」, 같은 곳

**【참고문헌】**

大巡眞理會 敎務部,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指針』,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東京大典』

『龍潭遺詞』

두산세계대백과 EN CYBER

金 鐸, 『동학과 증산교의 만남』, 서울: 한누리미디어